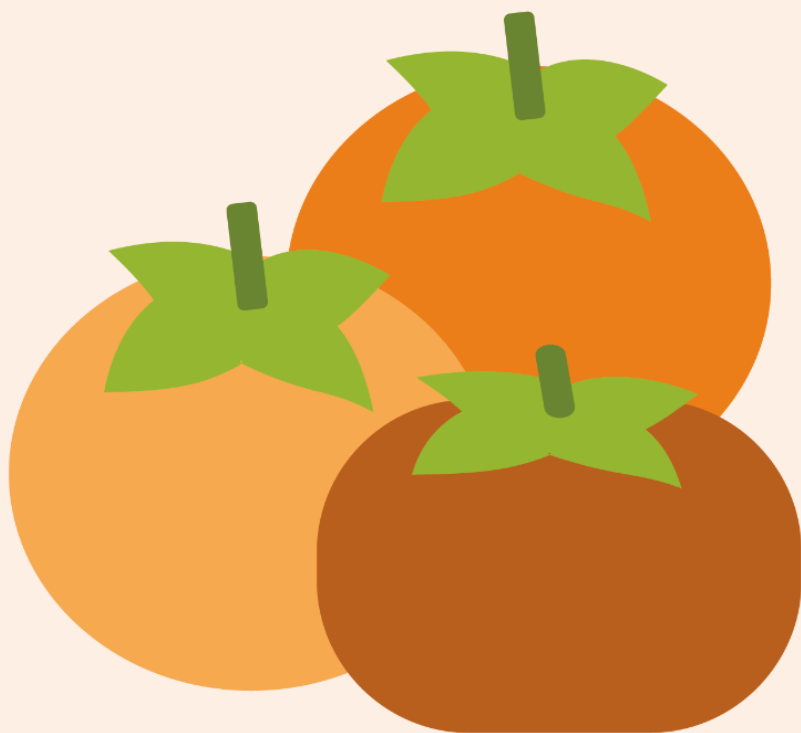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생태계의 학생 사회혁신가 여정 연구 보고서



2023-2 사회혁신을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및 실습 수강생

경영학부 채수연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이정인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한채원
의류학과 이서연

2023.12.23

Chapter 0. 보고서 개요

- 1) 학생 사회혁신가의 분류 (연시, 홍시, 꽃감)
- 2) 학생 사회혁신가 **Persona**

Chapter 1. 사회혁신에 대한 생각

- 1) 사회혁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 사회혁신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3) 어떤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 4) 사회혁신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Chapter 2. 사회혁신 융합전공

- 1) 사회혁신 융합전공에 입문한 계기가 무엇인가?
- 2) 재미있게 들었거나 추천해 주고 싶은 과목은 무엇인가?
- 3)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는가?
- 4) 사회혁신 융합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0~10점** 중에 선택한다면?
- 5)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만족스러운 점이 있는가?
- 6)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는가?
- 7)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변화된 점이 있는가?

Chapter 3. 진로 결정

- 1)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
- 2)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실제로 받은 도움 중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가?

Chapter 4. Journey Map

Chapter 5. 마무리하며

- 1) 요약 및 정리
- 2) 제언

Chapter 0.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세 가지 챕터를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학생 사회혁신가의 생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Chapter 1. 사회혁신에 대한 생각]에서는 연시, 흥시, 꽃감 단계별 사회혁신의 정의, 사회혁신가의 역량, 관심있는 사회문제, 사회혁신 관련 활동을 알아보았다. [Chapter 2. 사회혁신 전공]에서는 사회혁신 입문계기, 추천 과목,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스러운 점, 아쉬웠던 점, 변화된 점을 알아보았다. [Chapter 3. 진로결정]에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원하는 도움, 실제로 받은 도움 중 도움이 되었던 것을 알아보았다. [Chapter 4. Journey Map]에서는 인터뷰와 설문조사, Persona를 바탕으로 한양대 생태계 속 학생 사회혁신가의 Journey Map을 설정해보았다. 마지막으로 [Chapter 5. 마무리하며]에서는 도출된 Insight와 제안할 점을 서술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차 인터뷰는 2023.09.18~09.23, 2차 인터뷰는 2023.09.25~11.10, 3차 인터뷰는 2023.11.13~12.04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Typeform을 통해 2023.12.06~12.13까지 41명이 참여하였고, 총 20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1. 사회혁신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2. 참여했던 사회혁신 활동 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3. 현재 사회혁신에 얼마나 몰입 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하는 중이신가요? 혹은, 전공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5. 몇 학기동안 수강하셨나요?
6. 사회혁신융합전공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7. 재미있게 들었거나 추천해 주고 싶은 과목이 있으신가요? 그 과목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8. 해당 과목을 추천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 해당 과목은 어떤 유형에 가까울까요?
10. 그렇다면, 사회혁신융합전공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나요?
11. 사회혁신융합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선택한다면?
12.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하며 '수업'과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13.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하며 '비교과 활동'과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14.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하며 '네트워크 혹은 연결'과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15.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하며 '수업'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16.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하며 '비교과 활동'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17.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하며 '네트워크 혹은 연결'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18.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하며 '전공 자체'와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19.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원하시나요?
20. 실제로 받은 도움 중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1) 학생 사회혁신가의 분류 (연시, 홍시, 꽃감)

본 연구팀은 한양대학교 생태계의 학생 사회혁신가를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하며 성장 단계를 연시, 홍시, 꽃감의 3 단계로 정의해보았다.

 연시	 홍시	 꽃감
사회혁신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	사회혁신에 입문한 후, 관련 수업, 프로그램, 강연 등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참여를 시도하는 사람	사회혁신에 몰입하여 관련 수업, 프로그램, 강연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본 설문과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닉네임을 사용한 참여자 존재)

연시 (16명)

쌈/ 의류학과
안채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부전공: 미래인문학융합전공)
조윤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다전공: 창업융합전공)
김주원/ 경영학부
Soo/ 의류학과
한우영/ 경영학부
강민준/ 경영학부
안종호/ 경영학부
김재영/ 경영학부
Jeyoonn/ 경영학부
송민지/ 경영학부
익명1/ 스포츠산업학과
James/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박소희/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김태민/ 국제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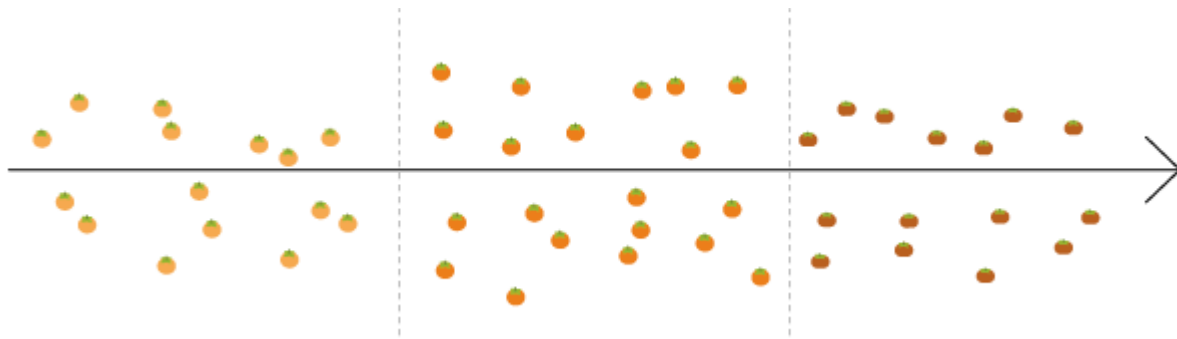
홍시 (19명)

이유진/ 정책학과
그로잇/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괘미지/ 의류학과 (다전공: 철학과, 사회혁신융합전공)
이유정/ 에너지공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데굴데굴/ 의류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장서윤/ 경영학부
밍똥/ 의류학과 (다전공: 파이낸스경영)
김유정/ 피아노과 (다전공: 경영학부)
김연수/ 정치외교학과 (부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연슈/ 행정학과 (다전공: 정보시스템학과)
o o/ 국제학부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이규민/ 경영학부
김예원/ 경영학부
유시연/ 경영학부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김유강/ 화학공학과 (부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한재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허수현/ 국어국문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송용진/ 수학과 (부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주현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최윤택/ 정치외교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꽃감 (15명)

김영재/ 경제금융학부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김동우/ 경영학부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창업융합전공)
정민재/ 행정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김민재/ 파이낸스경영학과 (부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채수연/ 경영학부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이정인/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부전공: 경영학부)
클레어/ 국제학부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헬렌/ 국제학부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최성민/ 정치외교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표정완/ 정책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김윤수/ 건축학과
이예은/ 국제학부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권민경/ 의류학과 (다전공: 파이낸스경영)
유지민/ 정책학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안수현/ 영어교육과 (다전공: 사회혁신융합전공)

또한, 이들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학생 사회혁신가 Persona

앞서 나눈 3개의 학생 사회혁신가 그룹(연시, 홍시, 꽃감)에 따른 Persona를 설정해보았다.

[Persona 1 - 연시 🍊]

Persona 1 (연시)

 이름 : 서민경 나이 : 22세 전공 : 식품영양학과	특징 -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음 - 사회혁신융합전공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전공을 신청하지 않음 - 최근 Seventeen Hearts Festival에 참여하여 전공 소개를 들음
Pain Point 1. 사회혁신 융합전공의 수업을 듣는 첫 시도에 대한 두려움 존재 2. 해당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면 좋을지 모르겠음	Needs 1. 해당 전공을 한다면, 어떤 진로로 갈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된 정보가 필요함 2. 해당 전공을 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음

대상자가 겪는 상황이나 실제로 했던 말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전공 공부나 다른 것들을 하며 그런 문제들과는 좀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정 활동을 하며 교육 불균등, 지방소멸 등과 같은 문제들을 접하며 정말 심각하구나를 깨달았어요. 사회혁신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미리 경험한 분들의 조언들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1

[Persona 2 - 홍시 🍊]

Persona 2 (홍시)

 이름 : 김연규 나이 : 23세 전공 : 경영학부	특징 -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친구의 추천을 통해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시작하게 됨 - 사회혁신 융합전공에 입문 후, 관련 수업과 프로그램, 강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함
Pain Point 1. 사회혁신 융합전공에서 배우는 지식에 모호함을 느낌 2. 이 전공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진로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Needs 1. 배우는 과목들이 어떤 분야의 것들을 배우는지 명확하게 설명되기를 원함 2. 주 전공을 살리되, 사회혁신을 함께 엮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찾고 싶음 3. 동아리, 학회, 인턴 등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혁신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함

대상자가 겪는 상황이나 실제로 했던 말

"리빙랩처럼 성수동에 있는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소셜벤처와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커리큘럼 상 졸업이 가능하도록 400단위 수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회혁신 전공을 살린 진로를 생각 중이지만, 우선 제 주전공을 제일 첫번째로 생각 중이에요."

2

[Persona 3 - 꾀감 🍊]

Persona 3 (꾀감)



이름 : 이예한
나이 : 25세
전공 : 국제학부

특징

- 사회혁신에 몰입하여 관련 수업, 프로그램, 강연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진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어떤 진로로 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중임

Pain Point

1. 사회혁신 융합전공에서 듣고 싶은 수업이 있었지만, 인원수가 적어 폐강이 된 경험이 있음
2. 꽤 오랜 기간 사회혁신전공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혁신에서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음

Needs

1. 다양한 분야의 입문 수업 외에도 대학원 진학이나 관련 업계로 진출 가능한 심화 과목을 필요로 함
2. 사회혁신을 계속 공부하고 있음에도, 정리된 정보가 없어 정보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에 해당 부분이 전공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길 원함

대상자가 겪는 상황이나 실제로 했던 말

"상대적으로 입문시키는 수업들만 이렇게 넓게 분포했다 보니까 입문을 잘 시키지만 실제로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관련된 업계로 배출하는 통로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트워킹 관련해가지고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흥미나 기회나 사람들 간의 연결성이 많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취준하는 입장에서는 그걸(사회혁신에서 배운 것)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업 측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3

본 보고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혁신융합전공 학생에게는 본 보고서를 읽으며 사회혁신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사회혁신 여정을 회고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회혁신융합전공 담당자에게는 본 보고서를 전달해서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더 좋은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셋째, 사회혁신융합전공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고민하거나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

Chapter 1. 사회혁신에 대한 생각

1) 학생들은 사회혁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연시

i. 권민경

#가랑비 #사소한 노력이 모여 긍정적 변화

- “‘가랑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급진적으로 사회를 변화 시켜야 할 것 같고, 비유적으로 ‘폭풍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개개인의 정말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랑비 하나하나들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 같아요.”

ii. 김태민

#갈등 해소

- “인적 자원 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지.”

b. 홍시

i. 이서연

#아이디어 제안부터 실현까지

- “저희가 주변을 관찰해서 물건을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에서 그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는 것이 사회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ii. 최윤태

#사회적 임팩트를 내는 해결방안 제시

- “문제에 대한 효율적/창의적/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내는것이 혁신이며, 사회문제에 있어서 그런 솔루션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임팩트를 (혹은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회혁신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c. 곳감

i. 최성민

#수혜자가 변화하는 모습들

- “저는 그런 걸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수혜자가 변화하는 모습들. 사실 일을 하는 거는 나의 욕구 충족,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나의 성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제가 봉사 활동을 갔을 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혜자가 변화하는 모습들이 진짜 사회 혁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

2) 사회혁신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연시

i. 박소희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도전 정신

- “사회혁신가는 뭔가 느낌이 사회에 일단 관심이 좀 많아야지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그런 좀 도전 정신 이런 게 있는 그런 사람이 사회혁신가라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아.”

b. 홍시

i. 채수연

#선한 마음 #소통 능력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 “일단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약간 관계를 좀 중시하는 편인데 사회혁신 활동을 할 때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소통 능력이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ii. 이서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회혁신가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 #추진력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는 것이 사회혁신

- “저는 두 가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진력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는 보통 사회혁신가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를 되게 좀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사회혁신가에게도 필요하지만 저한테 진짜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 추진력은 저희가 주변을 관찰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에서 그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는 것이 사회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역량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c. 꽃감

i. 최성민

#선한 마음 #약자를 위한 방식을 조금 더 고민 #늘 고민하는 사람 #사회혁신은 남들이 다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결국 눈을 돌릴 수 있는 분야 #용기 있는 사람 #좀 더 소외된 목소리를 얘기하는 사람

- “사회혁신가가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사회혁신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사회혁신을 한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 나만 위한 방식이 아니고 좀 더 새로운 방식,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지 못한 약자를 위한 방식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하다 보니까 선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도 모호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워낙 사회혁신이라는 분야가 뜨고 있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하려면 선한 마음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늘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에 하던 방식을 추구했다면 그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남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추구할 것 같은데 사회혁신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길이 맞나 남들이 다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결국 눈을 돌릴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더라도 내가 기존의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택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까 용기가 없다면 그 길을 도전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혁신가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좀 **weird**한 모습을 보여야지 사회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 좀 튀어 재 왜 저기까지 나가서 저런 일을 하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기업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할 때 기득권을 위한 방식보다는 좀 더 소외된 목소리를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용기가 있어야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어떤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a. 연시

i. 김태민

#젠더 갈등 #배터리

- “미디어를 통해, 특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젠더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 또 최근에는 **Energy Security and Geopolitics in East Asia** 라는 과목을 통해서 들은 배터리에 관해서도 많이 배웠어.”

ii. 박소희

#ai의 발달 #ai 디자이너 #나만의 디자인 #지속 가능한 건축

- “극적으로 전공과 조금 엮어보자면 확실히 뭔가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이런 디자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ai 디자이너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ai가 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디자인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 “또 건축적으로 보면 이번에 스튜디오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게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건물이 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의 다 철거하는 과정도 다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지을 때 되게 탄소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좀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ii. 권민경

#교육 불균등 #지방소멸

- “제가 앞서 사회혁신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사회혁신랩 자소서를 쓰며 교육 불균등, 지방소멸 등과 같은 문제들을 접하며 정말 심각하구나를 깨달았어요. 비즈니스랩 활동과, 경영대학 PBL 캠프톤의 주제 또한 지방소멸이어서 사회혁신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b. 홍시

i. 채수연

#자립 준비 청년 #제대로 된 교육 #미래 사회를 이끌 아이들

- “최근에는 제가 동아리에서 자립 준비 청년 관련 단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런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꽤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ii. 이서연

#환경 문제 #의류산업에서의 ESG #환경을 위한 의류의 두 얼굴

- “저는 환경 문제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데 작년에 전공 수업에서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와서 저희 의류산업도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말씀하시면서 한 게 의류 산업들은 보통 그 ESG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의류 산업이 의료 폐기물이나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를 보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 “또 요즘에 환경을 위한다고 그냥 가죽도 비건 가죽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도 오히려 일반 가죽을 사용하는 것보다 아예 가공하는 거에도 훨씬 더 많은 연료나 아니면 물 같은 게 필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더 별로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류 산업이 진짜 엄청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c. 꽃감

i. 유지민

#전기차의 두 얼굴 #환경 #독일의 사례를 통한 깨달음

- “전기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연기관차 보다는 훨씬 더 탄소 저감에 기여한다고 알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연기관차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들 때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금속 제품들도 이제 채고를 할 때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애나 그러니까 인권을 되게 훼손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걸 채굴하면서 또 그걸 만들면서도 많은 탄소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모든 전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화력 발전으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전기차를 사용한다고 해도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화력 발전으로 인한 전기는 말짱 도루묵인 생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폐기 단계에서도 전기차의 대부분의 것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좋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 과정을 봤을 때 크게 환경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전기차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추력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조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했던 것 같고”

- “되게 특이한 독일에서 나온 판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례인데 독일도 어쨌든 eu 회원국 중에 하나로서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이만큼 줄이겠다 유럽 내에서 이렇게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그 결정을 했으면 되게 특이한 독일에서

나온 판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례인데 독일도 어쨌든 eu 회원국 중에 하나로서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이만큼 줄이겠다 유럽 내에서 이렇게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그 결정을 했으면 되게 특이한 독일에서 나온 판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례인데 독일도 어쨌든 eu 회원국 중에 하나로서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이만큼 줄이겠다 유럽 내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그 결정을 했으면 너무 신선하잖아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남았구나 가야 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ii.

안수현

#장기적으로 모든 문제들은 교육으로 해결 가능 #교육의 잠재력

-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모든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으로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뿐이지 근본적으로 교육이 세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이게 교육이라는 게 파워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자립심을 키우는 게 좋잖아요. 계속 지원을 해줘서 될 게 아니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교육으로서 해결될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iii.

최성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람, 분야에 관심 #흐름이 바뀌어야 세상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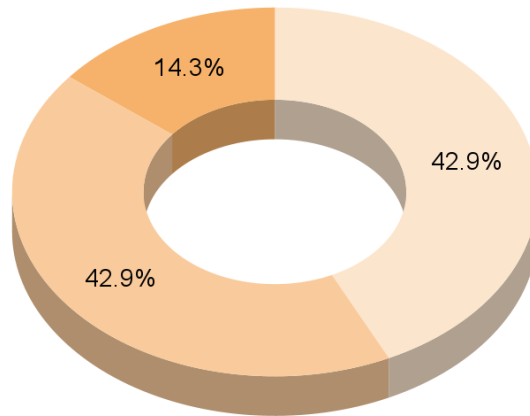
- “특정 분야의 사회문제 하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하는 방법과 해결하는 사람,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사회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환경 문제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회활동가가 꿈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해결 방안은 한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흐름이 바뀌어야 하고 잘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변화가 있어야지 결국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사회혁신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a. 연시 🍊

4) 사회혁신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연시 13명)

- 교과 활동(수업)
- 교내 비교과 활동(축제, 대회, 동아리 등)
- 기타 활동



항목	세부 내용
교과 활동(수업)	● 국제학부 전공 수업 'Energy Security and Geopolitics in East Asia' ●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전공 수업에서 진행한 '파타고니아 팝업 스토어 프로젝트' ● 사회혁신공감실습 (서현선) ● 사회혁신실습 (이호영) ● 사회혁신 비즈니스 랩 (2)
교내 비교과 활동(축제, 대회, 동아리 등)	● 복 나눔 멘토링(멘토 멘티 활동) ● SDGs 놀이 부스 운영 ● Seventeen Hearts Festival 참관 ● Askthon(에스크톤) Big Question 대회 참가 ● 사회혁신융합전공 홍보 부스 운영 ● 환경 동아리에서 헌 옷을 수거해 아름다운 가게로 보내는 활동을 한 경험

기타 활동	● 인터뷰 경험 ● ESG 관련 프로젝트 기획 경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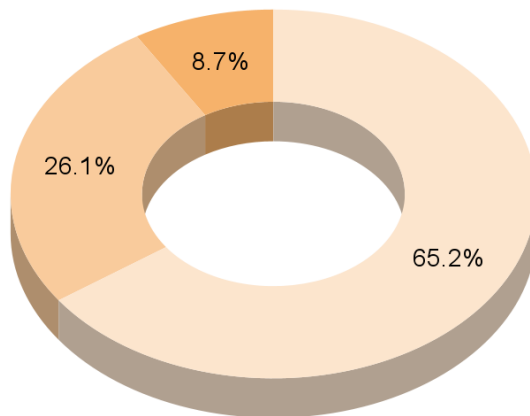
i. Insight

1. 연시의 사회혁신 관련 활동 경험의 경우, '교과 활동(수업)'과 '교내 비교과 활동(축제, 대회, 동아리 등)'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활동'이 적은 개수로 3위를 차지하였다.
2. 이를 통해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또한 연시들의 사회혁신 관련 활동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b. 홍시 🍊

4) 사회혁신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홍시 11명)

- 교과 활동(수업)
- 교내 비교과 활동(축제, 대회, 동아리, 서포터즈 등)
- 기타 활동(대외 활동)



항목	세부 내용
교과 활동(수업)	● 리빙랩 ● 기후위기와협동조합탈탄소화 ● 체인지메이커십 ● 사회혁신의이해 (전영수) ● 지속가능개발과젠더 (조혜림) (2) ● 사회혁신공감실습 (서현선) (3) ● 수업에서 진행한 '지구 살리기 챌린지 제작 활동' ● 임팩트측정및커뮤니케이션 (이호영)

	● 사회적기업가정신 ● 인구변화와미래복지 (전영수) ● 경영대학캡스톤PBL ● 사회혁신과시민사회조직
교내 비교과 활동(축제, 대회, 동아리, 서포터즈 등)	● SDGs Ambassador 및 SHF 축제 부스 운영 (2) ● Seventeen Hearts Festival 참관 ● 혁신한대(사회혁신 관련 소식을 카드 뉴스로 제작) ● APYE(Asia Pacific Youth Exchange, 아시아 태평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 십시일밥 활동
기타 활동(대외 활동)	● ESG 분야 관련 대외 활동 ● 사회혁신 관련 행사(SOVAC)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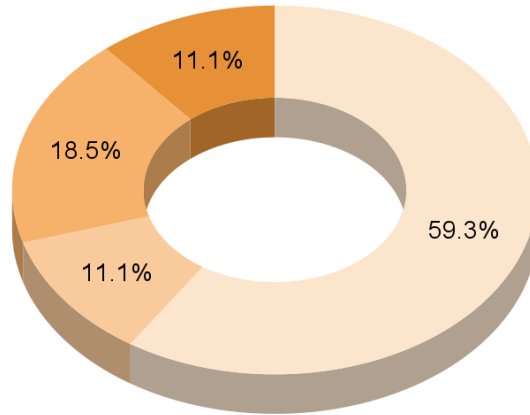
i. Insight

1. 홍시의 사회혁신 관련 활동 경험의 경우, '교과 활동(수업)'이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교내 비교과 활동(축제, 대회, 동아리, 서포터즈 등) (2위)', '기타 활동(대외 활동) (3위)' 순으로 뒤를 이었다.
2. 이를 통해 교과 활동이 홍시들의 사회혁신 관련 활동 경험에 가장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c. 곳감 🍅

4) 사회혁신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곳감 11명)

- 교과 활동(수업)
- 교내 비교과 활동(축제, 대회, 동아리 등)
- 기타 활동(대외 활동)
- 인턴 및 직무 경험



항목	세부 내용
교과 활동(수업)	● 인구변화와미래복지 (전영수) ● 사회적금융과미래혁신 (전영수) (2) ● 임팩트측정및커뮤니케이션 (이호영) ● 사회혁신의이해 (전영수) (2) ● 지속가능한사회와건강 ● 진저티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소셜 인사이트 앤드 이해관계자 맵핑 (서현선) ● 컬렉티브임팩트실습 (서현선) (2) ● 사회혁신공감실습 (서현선) (2) ● 사회혁신 비즈니스 랩 (2) ● 지속가능한도시와소셜리빙랩 ● 경영대학캡스톤PBL: 기업시민
교내 비교과 활동(축제, 대회, 동아리 등)	● Seventeen Hearts Festival의 사회혁신융합전공 설명회 참관 ● 십시일밥 사무국원 활동을 통한 타 기관 실무자들과의 많은 미팅 경험 ● 키다리은행 활동

기타 활동(대외 활동)	● CSR Youth Forum(학생들이 모여 CSR 연구 및 분석, 활동 제안) ● 조선일보의 사회혁신 언론 계열 '더 나은 미래'에서 진행하는 '청년, 세상을 담다'의 청년 기자로 활동한 경험 ● 서울시 주최 창업 경진 대회에서 비즈니스 모델 제작 ● 설리번 프로젝트(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만들고, 지역 내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 운영 ● 소셜 임팩트 측정 워크숍(소셜 임팩트 성과 측정 방법론 학습, 소셜 임팩트 생태계 체험)
인턴 및 직무 경험	● 임팩트리서치랩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사회 가치를 화폐 가치화 (2) ● Z세대와 조직 문화 연구 진행

- i. 곳감의 사회혁신 관련 활동의 경우, 홍시와 마찬가지로 '교과 활동(수업)'이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활동(대외 활동)'이 2위를 기록하였고, '교내 비교과 활동(축제, 대회, 동아리 등)'과 '인턴 및 직무 경험'이 공동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 ii. 이를 통해 역시나 교과 활동이 곳감들의 사회혁신 관련 활동 경험에 가장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d. 비교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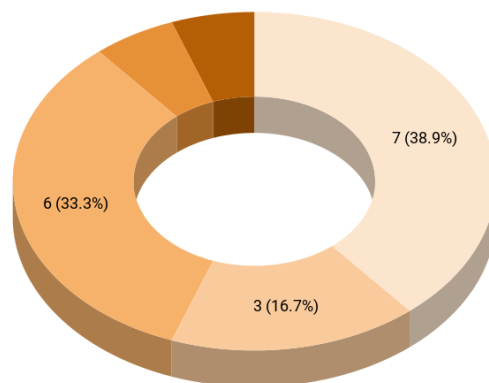
- i. 공통적으로, 연시, 홍시, 곳감 모두 교과 활동(수업)이 1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 활동(수업)이 세 그룹 모두의 사회혁신 관련 활동 경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i. 홍시의 경우, 교내 비교과 활동의 세부 항목에 서포터즈가 추가되었다.
- iii. 연시 및 홍시와 달리 곳감의 경우, 항목에 인턴 및 직무 경험이 추가되었다.
- iv. 연시 및 홍시의 경우, 기타 활동(대외 활동)이 적은 개수로 3위를 기록한 반면, 곳감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2위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사회혁신가의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교내 활동 외의 대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apter 2. 사회혁신 융합전공

1) 사회혁신융합전공에 입문한 계기가 무엇인가?

1) 사회혁신융합전공에 입문한 계기가 무엇인가?

- 친구(지인)의 추천을 통해
- 대학 입학 이전의 관심
- 수업 선수강
- 흥미
- 사회혁신활동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됨



i. Insight

- 친구(지인)의 추천 혹은 수업 선수강을 통해 사회혁신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 이외에도 대학 입학 이전의 관심, 흥미, 사회혁신활동을 접한 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a. 친구(지인)의 추천

i. Quotation

1. 최성민 🍅

- “저희 과 선배들이 앞서 사회혁신융합전공을 많이 하셔서 저도 호기심에 따라갔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수업은 전영수 교수님 수업인데 들으면서 여기는 내가 누울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수업들은 사상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주제에 대한 대답이 전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회 **agenda**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1번 질문이랑 잘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엄청 큰 트라우마라던가 변화가 있었다면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문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하게 되면서 처음 시작은 전영수 교수님 수업이었지만 모든 분야에서 사회혁신을 할 수 있구나라는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다중전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중전공을 하면서 다양한 대외활동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CSR**, 사회혁신 관련된 대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CSR Youth Forum**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CSR**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CSR**이 있었나 무엇이 잘됐나 못 되었나를 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이 기업에 필요한가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더 나은 미래라는 사회혁신언론 계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청년, 세상을 담다의 청년 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혁신에 좀 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b. 수업 선수강

i. Quotation

1. 표정완 🍅

- “정확히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신입생 때 처음 들었던 교양이 전영수 교수님 ‘인구변화와 미래복지’였어요. ‘대학교에 이런 수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좋은 추억을 가져간 것 같고, 심지어 그때 그 수업에 굉장히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의 의견까지 되게 유머러스하게 그건 이제 교수님의 개인 역량이시긴 하겠지만 가지고 가서 메인 주제와 연결되는 질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고서 ‘이게 뭐지?’ 그런 인상을 가졌었고 군대 가기 직전에 아마 그때가 처음인가 두 번째 열린 **Seventeen Hearts Festival** 올림픽 체육관에서 할 때였을 텐데 사회혁신융합전공 설명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이야기 듣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c. 대학 입학 이전의 관심

i. Quotation

1. **이예운** 🍊

- “저는 사회혁신이란 단어는 대학교 와서 처음 접했고 근데 그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봤을 때 뭔가 사회에 유의미한 일을 하고 싶다는 거는 계속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제기구 이런 쪽을 생각을 했었다가 대학교 와서도 선택하는 활동들이 다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아니면 뭔가 주제를 선택할 때도 항상 사회 문제 쪽으로 가니까 내 마음이 이런 쪽에 끌리는구나를 알았었고 그래서 체험 삼아 사회혁신의 이해를 전 먼저 들었어요. 전영수 교수님의. 근데 같은 동료들을 만나니까 이 커뮤니티가 좋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점점 사회혁신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d. 사회혁신활동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됨

i. Quotation

1. **권민경** 🍊

- “우리 학교의 ‘사회혁신’을 알게 된 건 새내기 때 에뉴얼 리포트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사회혁신과 관련된 활동들이 우리 학교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2. **이서연** 🍊

- “몇 년 전 에브리타임을 통해 사회혁신융합전공의 리빙랩 수업에서 교내 카페들과 제휴를 맺어 일정 기간 동안 텀블러 할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혁신융합전공을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 해당 리빙랩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3. **김윤수** 🍊

- “저는 사회혁신전공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는 지인이 어떤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 파일럿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학생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러면 수업을 들으면서 어차피 어떤 일을 하는 거라면 약간 공모전 같은 느낌처럼 준비해서 뭔가 버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혁신

자체에 대한 충성도는 낮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그렇게 시작하기도 했고 뭔가 결심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다가 첫 수업이 현선님 수업이었고 이제 현선님 수업만 들은 케이스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는.”

e. 이외(인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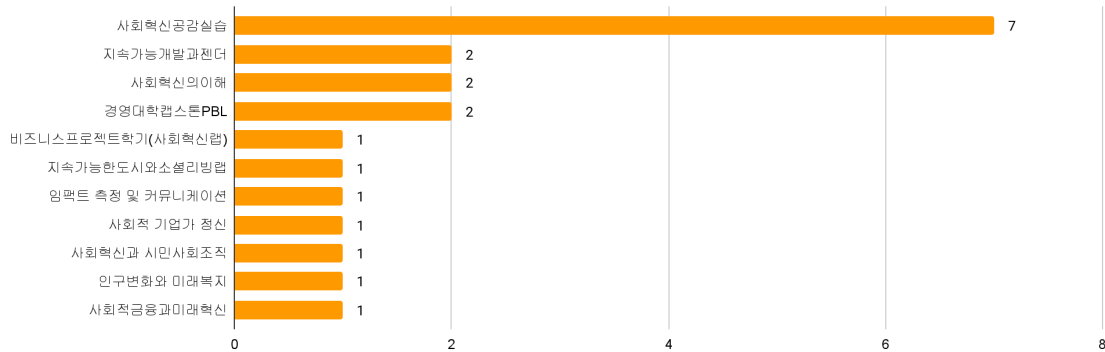
i. Quotation

1. 김영재 🍅

- “친구가 사회혁신을 듣고 있어서 그걸 통해 알게 되었고. 계기는 3학년 2학기 때 한 인턴 같아요. 인턴을 공기업에서 했었는데, 경제나 이쪽에서 유명한 기업에 들어갔었고. 근데 그 6개월 기간이 되게 지루하고 무능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공기업 특성상 새로운 시도보다는 뭔가, 기존의 것을 유지보수하고. 제가 맡은 것도 복사나 회의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그 안에서 기본기도 쌓이고 사업의 기초적인 것도 어깨너머 많이 봤지만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어요. 저는 눈빛으로 표현하는데, 사람들 눈빛이 퇴근시간만 바라고 근무시간에 퇴근을 기다리는 느낌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저와 맞지는 않았어요. 사회혁신을 4학년 1학기 전공으로 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했고, 여기서는 신나고 재밌게 일을 하게 되고 이 프로젝트가 사회나 누구에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가능성도 보이고. 내가 반영될 여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재미있게 들었거나 추천해 주고 싶은 과목은 무엇인가?

2) 재미있게 들었거나 추천해 주고 싶은 과목은 무엇인가?



a. 사회혁신공감실습

i. Quotation

1. 사회혁신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공감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수업이라서요.
2. 나 자신을 공감하고, 남을 공감하며 사회를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나를 돌아보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내가 몰랐던 분야를 알 수 있어서
4. 기존 대학 수업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수업. 공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배울 수 있음.
5.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추천함
6. 사회혁신에 입문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과 이야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수업이라서 좋았다.

b. 지속가능개발과젠더

i. Quotation

1. 국제개발협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젠더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교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c. 사회혁신의이해

i. Quotation

1. 단순히 의도 좋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던지는 게 사회혁신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d. 경영대학캡스톤PBL

i. Quotation

1. 실제 기업(포스코그룹)과 esg, 기업시민 관련 신사업 제안을 진행해볼 수 있었다.
2. 기업 ESG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과목

e. 비즈니스프로젝트학기 (사회혁신랩)

i. Quotation

1. 한 학기동안 랩원들과 교수님, 멘토님과 함께 **SSIR**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직접 실무에 투입되어 디자인해본 경험이 의미있었기 때문이다.

f. 지속가능한도시와소셜리빙랩

i. Quotation

1. 사회 문제 해결 방법론의 실천을 통한 학습

g. 임팩트 측정 및 커뮤니케이션

i. Quotation

1. 이론 수업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고, 수업 내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h. 사회혁신과 시민사회조직

i. Quotation

1. 다양한 **NGO**에 가보며 실정을 알 수 있다.

i. 인구변화와 미래복지

i. Quotation

1. 전영수 교수님이 좋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활발하게 참여했던 팀플이자 토론수업이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사회문제인 인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j. 사회적금융과미래혁신

i. Quo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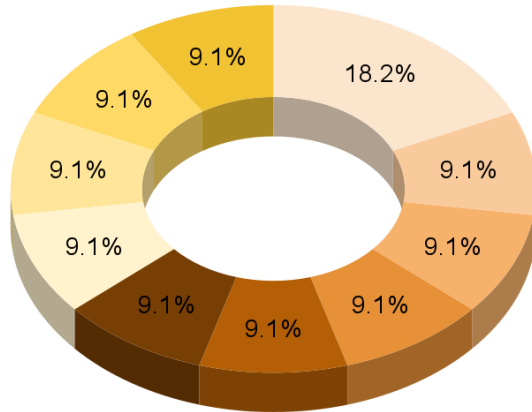
1. 사회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 알고 고민할 수 있었고, 주변 학우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3)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는가?

a. 홍시 🍊

3)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는가? (홍시 10명)

- ESG
- 환경(기후위기)
- 젠더
- ODA
- 교육
- 400단위 과목
- 관련 진로 탐색
- 컨설턴트 직무를 간접경험해볼 수 있는 수업
- 실제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결과 도출해서 발전시키는 수업
- 다양한 사회문제에 깊이 개입해볼 수 있는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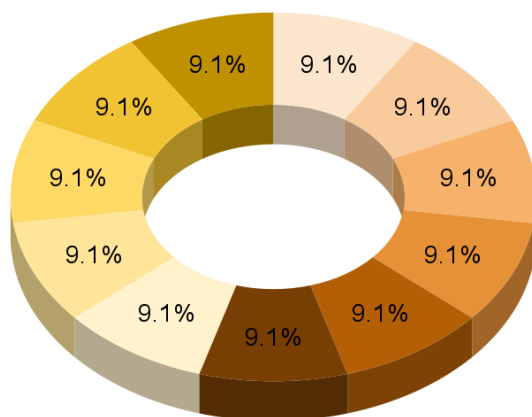
i. Insight

1. 홍시가 가장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은 ESG 관련 과목이다.
2. 환경, 젠더, ODA 등 특정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싶어한다.

b. 꽃감 🍊

3) 개설되었으면 과목이 있는가? (꽃감 9명)

- 국가 정책
- 임팩트 측정
- ESG
-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 심화 과목
- 프로젝트 수업
- 이론 수업
- 실제 사회혁신 업체들을 만나고 투어해보는 수업
- 기업 또는 단체와 산학 협력하는 실습 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UX 디자인 방법론 (디자인 혁신)
- 없음



i. Insight

1. 꽃감은 실제 사회혁신 기업을 접하고 관련 기술을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ii. Quotation

1. **이예운** 🍊

- "저는 심화 과목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네. 임팩트 금융이 너무 재밌네. 그러면 그걸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는 추가 수업이 있었으면 대학원 진학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입문시키는 수업들만 이렇게 넓게 분포했다 보니까 입문을 잘 시키지만 실제로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관련된 업계로 배출하는 통로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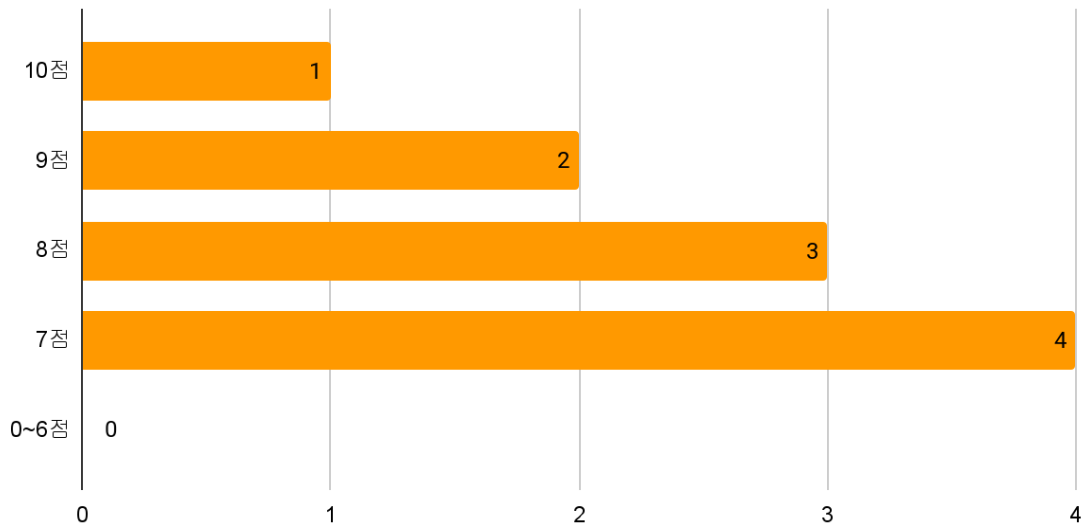
c. 비교 Insight

- i. 홍시와 꽃감이 공통적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으로 **ESG**를 적었다는 점에서 사회혁신융합전공생 중 **ESG**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 홍시는 특정 관심 분야의 지식을 쌓고 사회문제에 개입해보는데 관심이 있다면 꽃감은 실제 사회혁신 기업과 협력하고 기술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

4) 사회혁신 융합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0~10점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a. 홍시 🍊

4) 사회혁신 융합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0~10점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홍시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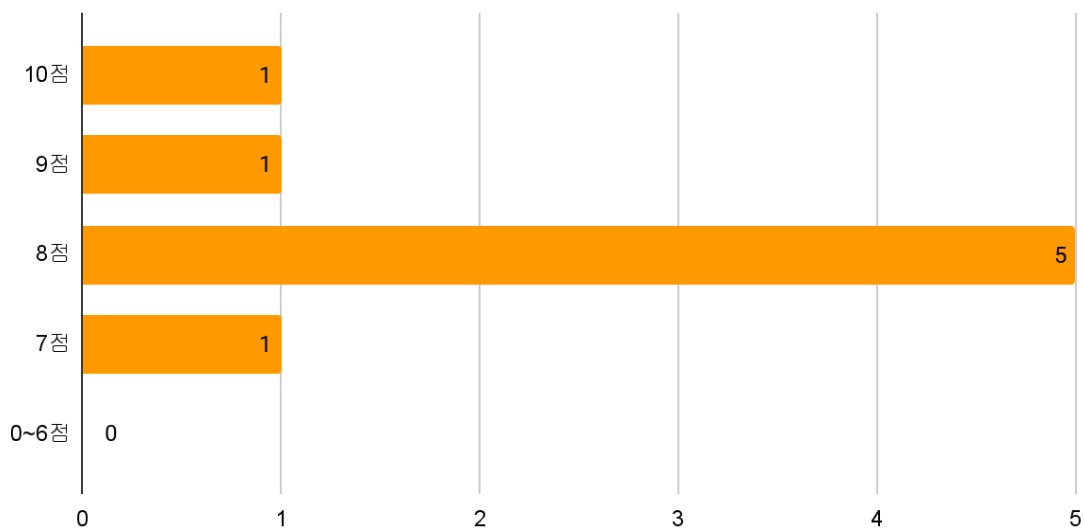


i. Insight

1. 홍시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은 8점으로 높은 편이나 곳곳에 비해 낮다.

b. 꽃감 🍊

4) 사회혁신 융합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0~10점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꽃감 8명)



i. **Insight**

1. 곳감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은 **8.25**점으로 높은 편이고 홍시에 비해 높다.
2. **8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c. 비교 **Insight**

- i. 홍시와 곳감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은 **8.1**점으로 사회혁신융합전공생의 전공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 ii. 홍시와 곳감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7점**과 **8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융합전공과 관련해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만족스러운 점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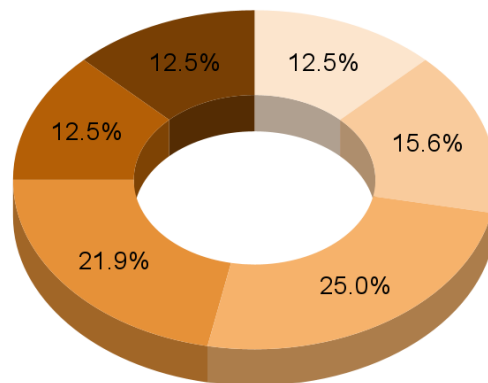
a. 수업

(항목 : 교수님의 강의력, 교수님의 열정, 수업 진행 방식 (IC-PBL, 토론형, 프로젝트형 등,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정, 다양한 분야의 수업 개설, 본인의 성장 및 발전, 없다)

i. 홍시 🍊

5)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만족스러운 점이 있는가?: 수업 (홍시 10명)

- 교수님의 강의력
- 교수님의 열정
- 수업 진행 방식 (IC-PBL, 토론형, 프로젝트형 등)
-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정
- 다양한 분야의 수업 개설
- 본인의 성장 및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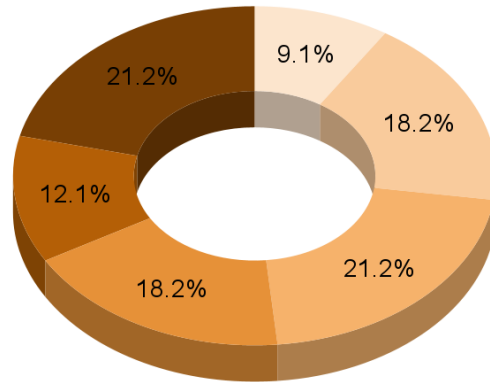
1. Insight

- a. 홍시는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 진행 방식에 가장 만족한다.

ii. 꽃감 🍊

5)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만족스러운 점이 있는가?: 수업 (곶감 8명)

- 교수님의 강의력
- 교수님의 열정
- 수업 진행 방식 (IC-PBL, 토론형, 프로젝트형 등)
-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정
- 다양한 분야의 수업 개설
- 본인의 성장 및 발전



1. Insight

- a. 곶감은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 진행 방식과 본인의 성장 및 발전에 가장 만족한다.

iii. 비교 Insight

1. 홍시와 곶감이 수업 진행 방식을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뽑았다는 점에서 사회혁신융합전공생들은 수업 진행 방식을 전공 수업의 최대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홍시에서 곶감으로 넘어가면서 본인의 성장 및 발전의 비율이 12.5%에서 21.2%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홍시 단계일 때보다 곶감 단계일 때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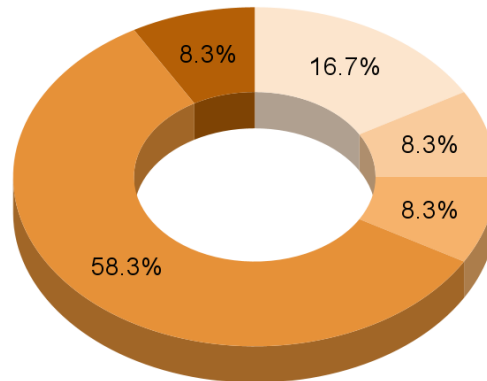
b. 비교과

(항목 : 동아리, 학회, 봉사활동, 인턴, 사회혁신 행사 참여, 없다)

i. 홍시 🍊

5)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만족스러운 점이 있는가?: 비교과 (홍시 10명)

- 동아리
- 봉사활동
- 인턴
- 사회혁신 행사 참여
-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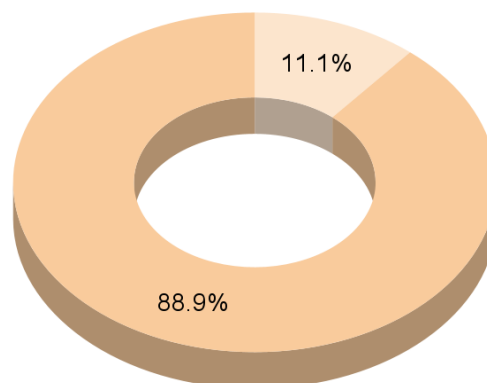
1. Insight

- a. 홍시는 비교과와 관련하여 사회혁신 행사 참여에 가장 만족한다.

ii. 꽃감 🍊

5)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만족스러운 점이 있는가?: 비교과 (꽃감 8명)

- 동아리
- 사회혁신 행사 참여



1. Insight

- a. 꽃감은 비교과와 관련하여 사회혁신 행사 참여에 가장 만족한다.

iii. 비교 Insight

1. 홍시와 곳감이 사회혁신 행사 참여를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뽑았다는 점에서 사회혁신융합전공생들은 사회혁신 행사 참여를 사회혁신 비교과의 최대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홍시의 경우 동아리, 봉사활동, 인턴 등 만족스러운 점이 여러 가지이지만 곳감의 경우 동아리와 사회혁신 행사 참여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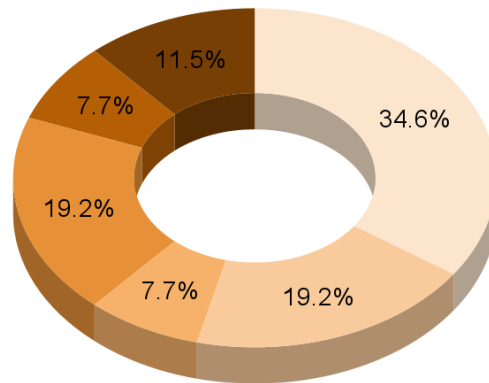
c. 네트워크

(항목 : 교수님, 친구들, 선배 및 후배, 실무자와의 만남, 다양한 행사가 열림, 소속감이 느껴짐, 없다)

i. 홍시 🍊

5)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만족스러운 점이 있는가?: 네트워크 (홍시 10명)

- 교수님
- 친구
- 선배 및 후배
- 실무자와의 만남
- 다양한 행사가 열림
- 소속감이 느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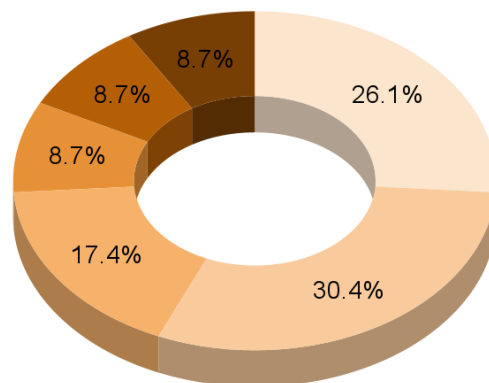
1. Insight

a. 홍시는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교수님에 가장 만족한다.

ii. 꽃감 🍊

5)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만족스러운 점이 있는가?: 네트워크 (꽃감 8명)

- 교수님
- 친구
- 선배 및 후배
- 실무자와의 만남
- 다양한 행사가 열림
- 소속감이 느껴짐



1. Insight

a. 꽃감은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친구에 가장 만족한다.

iii. 비교 Insight

1. 홍시는 교수님을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뽑은 반면 곳감은 친구를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뽑았다.
2. 교수님과 친구가 만족스러운 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융합전공생들은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교수님과 친구에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홍시에서 곳감으로 넘어가면서 선배 및 후배의 비율이 **7.7%**에서 **17.4%**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홍시 단계일 때보다 곳감 단계일 때 선배 및 후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6)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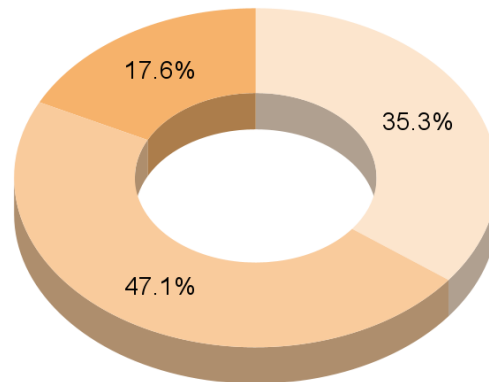
a. 수업

(항목 : 교수님의 강의력, 교수님의 수업 준비도, 알은 지식의 습득(심화 과목의 부족), 수업 평가 방식, 배우는 내용의 모호성, 폐강의 불안함, 없다)

i. 홍시 🍊

6)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는가?: 수업 (홍시 16명)

- 알은 지식의 습득 (심화 과목의 부족)
- 배우는 내용의 모호성
- 폐강의 불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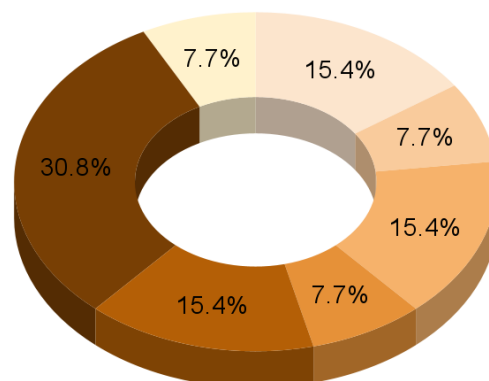
1. Insight

- a. 홍시의 경우, 배우는 내용의 모호성과 알은 지식의 습득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ii. 꽃감 🍊

6)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는가?: 수업 (꽃감 9명)

- 교수님의 강의력
- 교수님의 수업 준비도
- 알은 지식의 습득 (심화 과목의 부족)
- 수업 평가 방식
- 배우는 내용의 모호성
- 폐강의 불안함
- 없음



1. Insight

- a. 꽃감의 경우, 폐강의 불안함을 제일 많이 선택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 (배우는 내용의 모호성, 교수님의 강의력 등)을 선택하였다.

2. Quotation

a. 표정완

- “융합전공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다룰 수 있는 주제의 폭이 넓잖아요. 그게 가능성이긴 한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대안이나 방안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약하다는 특징을 가진 것 같기도 해요.”

- “흥미나 아니면 좋은 퀄리티의 수업이나 좋은 퀄리티의 세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그런 연결과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b. 김윤수

- “사회혁신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슬로건이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사회혁신융합전공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학과로 두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듣는 공통 과목처럼 하는게 어떨까 생각해요.”

c. 이예운

- “사회혁신 자체가 분야가 엄청 넓다 보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은 다른 분야를 배우는 느낌이고 또 교수님들의 느낌도 다르니까 이게 사회혁신인가 저게 사회혁신인가 고민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이해도가 또 다른 거예요. 친구는 이쪽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 저는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혼란이 쌓이고 스스로도 회의감을 갖게 되니까.”

- “저는 심화 과목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네요. 임팩트 금융이 너무 재밌네. 그러면 그걸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는 추가 수업이 있었으면 대학원 진학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입문시키는 수업들만 이렇게 넓게 분포했다 보니까 입문을 잘 시키지만 실제로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관련된 업계로 배출하는 통로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iii. 비교 Insight

1. 사회혁신융합전공의 ‘수업’ 측면에서, 흥시와 꽃감 모두 ‘폐강의 불안함’과 ‘얕은 지식의 습득’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얕은 지식의 습득’같은 경우, 사회혁신이 다룰 수 있는 주제의 폭이

넓고, 입문시키는 수업이 많지만 막상 심화과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홍시의 경우 '배우는 내용의 모호성'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는데, 이는 낯감으로 갈수록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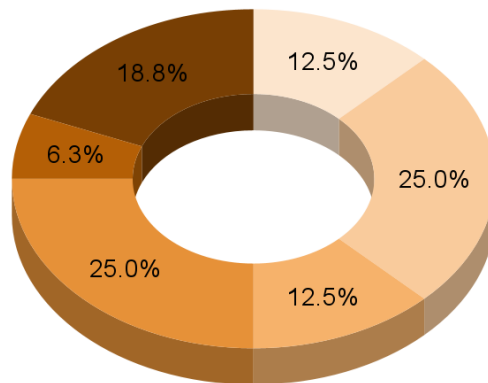
b. 비교과

(항목 : 동아리, 학회, 봉사활동, 인턴, 사회혁신 행사 참여, 없다)

i. 홍시 🍊

6)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는가?: 비교과 (홍시 16명)

- 동아리
- 학회
- 봉사활동
- 인턴
- 사회혁신 행사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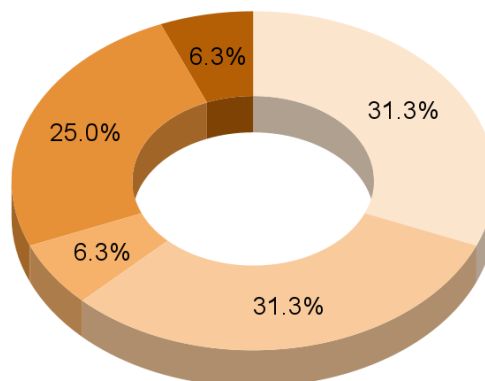
1. Insight

- a. 홍시의 경우, 인턴 활동과 학회의 부족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ii. 꽃감 🍊

6)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는가?: 비교과 (꽃감 9명)

- 동아리
- 학회
- 봉사활동
- 인턴
- 없음



1. Insight

- a. 곳감의 경우, 인턴, 동아리와 학회의 부족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iii. 비교 Insight

1. 사회혁신융합전공의 '비교과 활동' 측면에서, 홍시와 곳감 모두 다양한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2. 다만, 홍시의 경우 비교과 활동의 부족함이 '없다'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곳감의 경우 그 비율이 적어지고 비교과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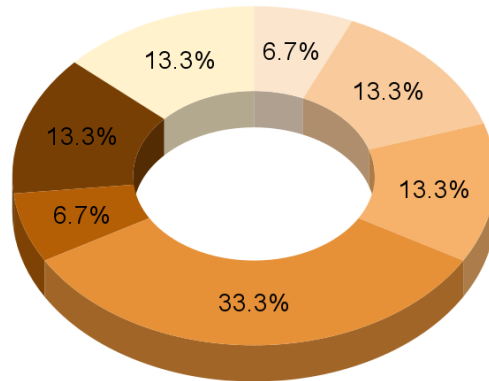
c. 네트워크

(항목 : 교수님, 친구들, 선배 및 후배, 실무자와의 만남, 행사의 부족,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음, 없다)

i. 홍시 🍊

6)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는가?: 네트워크 (홍시 16명)

- 교수님
- 친구들
- 선배 및 후배
- 실무자와의 만남
- 행사의 부족
-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음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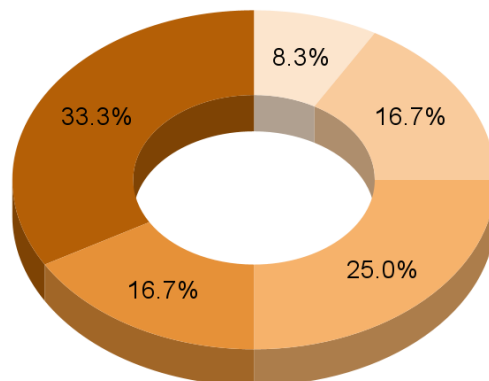
1. Insight

- 홍시의 경우, 네트워크 혹은 연결에서 실무자와의 만남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 또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원하였다.

ii. 꽃감 🍊

6)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는가?: 네트워크 (꽃감 9명)

- 교수님
- 선배 및 후배
- 실무자와의 만남
-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음
- 없음



1. Insight

- a. 곳감의 경우, 네트워크 혹은 연결에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무자와 선배 및 후배와의 만남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 b. 또한, 곳감의 단계임에도 여전히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나타났다.

iii. 비교 Insight

- 1. 사회혁신융합전공의 '네트워크 혹은 연결' 측면에서, 홍시와 곳감 모두 '실무자와의 만남'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 2. 홍시의 경우, 이제 막 사회혁신에 입문하였기에 '친구들'과의 연결의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곳감으로 갈수록 없어지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 3. 홍시뿐만 아니라 곳감의 경우에도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답변'도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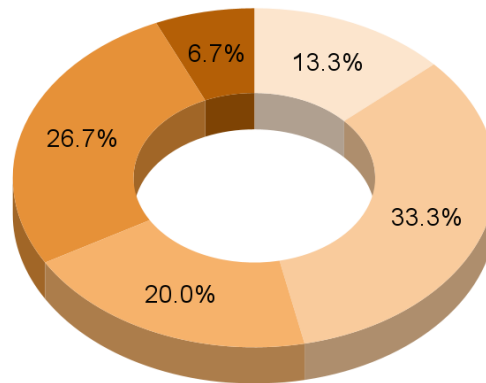
d. 전공 자체

(항목 : 부족한 체계, 미숙한 행정처리, 불투명한 진로, 느껴지지 않는 소속감, 정보의 부족, 없다)

i. 홍시 🍊

6)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는가?: 전공 자체 (홍시 16명)

- 부족한 체계
- 불투명한 진로
- 느껴지지 않는 소속감
- 정보의 부족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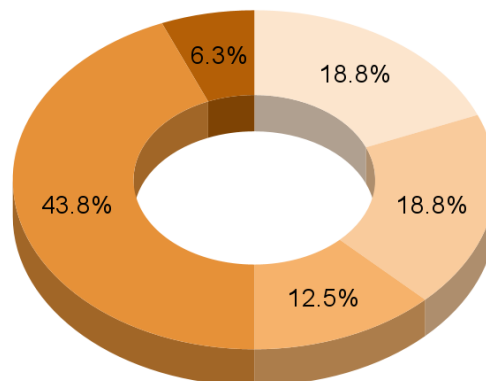
1. Insight

- a. 홍시의 경우, 불투명한 진로와 정보의 부족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ii. 꽃감 🍊

6)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는가?: 전공 자체 (꽃감 9명)

- 부족한 체계
- 불투명한 진로
- 느껴지지 않는 소속감
- 정보의 부족
- 없음



1. Insight

- a. 곳감의 경우, 정보의 부족을 크게 아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Quotation

- a. 김윤수 
- “사회혁신융합전공에 대한 아쉬움인지 모르겠지만 코드세어가 잘 안 된다. 그런 행정 같은 것들이 좀 (아쉬워요) 물론 저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가 조금 더딘 느낌? 소통이 서로 안 되고 교수님과 어떤 행정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학생으로서는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다 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코드세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아쉬운) 것들이 있죠.”

iii. 비교 Insight

1. 사회혁신융합전공의 ‘전공 자체의 아쉬움’ 측면에서, 홍시와 곳감 모두 ‘정보의 부족’과 ‘불투명한 진로’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2. 특히 곳감의 경우 ‘정보의 부족’이 거의 절반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7)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하며 변화된 점이 있는가?

a. 꽃감

i. 이예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치 #사라진 조급함

- “저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전에는 내가 잘 해내고, 빨리 해내고, 내가 성취해 내는 게 중요했다면 사회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좀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아요.”

ii. 김윤수

#네트워크의 중요성 #커뮤니케이션 #관계

- “이해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잘 되는 곳은 꾸준한 어떤 애정이 들어가는 품이 드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는 대응해야 되고 그전에는 어떤 좋은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전에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서로의 관계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지식으로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급하게 일을 처리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어요. 회사에서 있었을 때도.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실제로 제가 팀원들을 만난다든지 그럴 때 되게 스스로 변하는 게 느껴져요. 뭔가 이 좋은 완성된 어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엔 요 부분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고 이 관계가 실제로 나중에 무슨 일을 또 하고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이제는 잘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iii. 표정완

#새로운 생각과 질문을 공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 “답을 해보자면 질문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자유롭게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근데 여기 와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분들 또는 그런 분위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얻은 거라면 얻은 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생각이나 질문을 공유할 수 있고 내가 납득이 되는 말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였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얻었다라는 게 성장이라면 성장인 것 같습니다.”

iv.

최성민

#넓어지는 시야 #같이 하는 좋은 사람들

- “요즘 **CSR**이 핫했는데 그런 관련된 것들도 배우고 싶었고 **ESG**에도 관심이 미약하게나마 있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사회혁신 생태계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게 굉장히 작은 것들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업들을 수강했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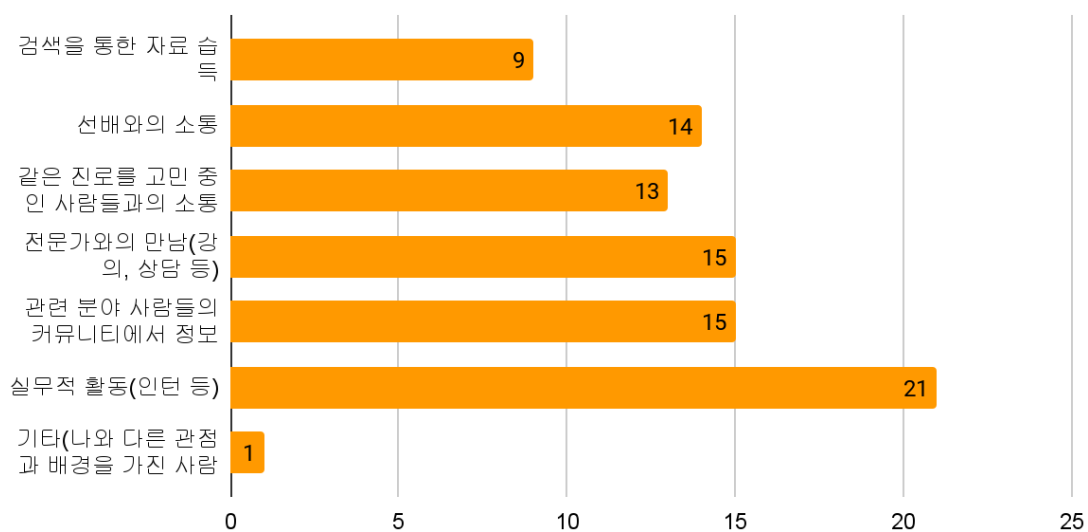
- “교수님 칭찬을 듣고 너무 재밌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이런 생태계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Chapter 3. 진로 결정

1)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 (아래 항목들 중 복수 선택)

(항목 : 검색을 통한 자료 습득 / 선배와의 소통 / 같은 진로를 고민 중인 사람들과의 소통(동아리 등) / 전문가와의 만남(강의, 상담 등) / 관련 분야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정보 습득 / 실무적 활동(인턴 등) / 기타)

1)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 (31명)



i. Insight

1.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하는 도움으로, '실무적 활동(인턴 등)'이 비교적 많은 개수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문가와의 만남(강의, 상담 등)'과 '관련 분야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정보 습득'이 공동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는 '선배와의 소통 (3위)', '같은 진로를 고민 중인 사람들과의 소통 (4위)'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검색을 통한 자료 습득 (5위)'이 비교적 적은 개수로 뒤를 이었고, '기타(나와 다른 관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는 것) (6위)' 항목에 대한 답변이 가장 적게 1건 존재하였다.
2.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무적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그러나 1위(실무적 활동), 5위(검색을 통한 자료 습득), 6위(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수준 항목에서의 개수 차이가 다소 크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다방면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a. 선배와의 소통

i. Quotation

1. **이예운** 🍊

- “취준하는 입장에서는 그걸(사회혁신에서 배운 것)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업 측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b. 같은 진로를 고민 중인 사람들과의 소통(동아리 등)

i. Quotation

1. **표정완** 🍊

- “내가 뭘 좋아하고 뭐에 맞지라는 고민은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나를 아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고, 저를 가까이 보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

c. 전문가와의 만남(강의, 상담 등)

i. Quotation

1. **이예운** 🍊

- “상대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고 재밌는지는 나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잘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평균치에 비해서 이 역량은 너가 좀 괜찮아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김윤수** 🍊

-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어필할 만한 요소가 나한테 무엇이 있는지, 그런 코칭이나 정보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d. 실무적 활동(인턴 등)

i. Quotation

1. **권민경** 🍊

- “앞으로는 실무적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인턴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인턴을 하면 아주 작은 역할일지라도 사무 보조 때는 그럴지 못했던 실무에 직접 투입이 되는 거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e. 기타(나와 다른 관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는 것)

i. Quo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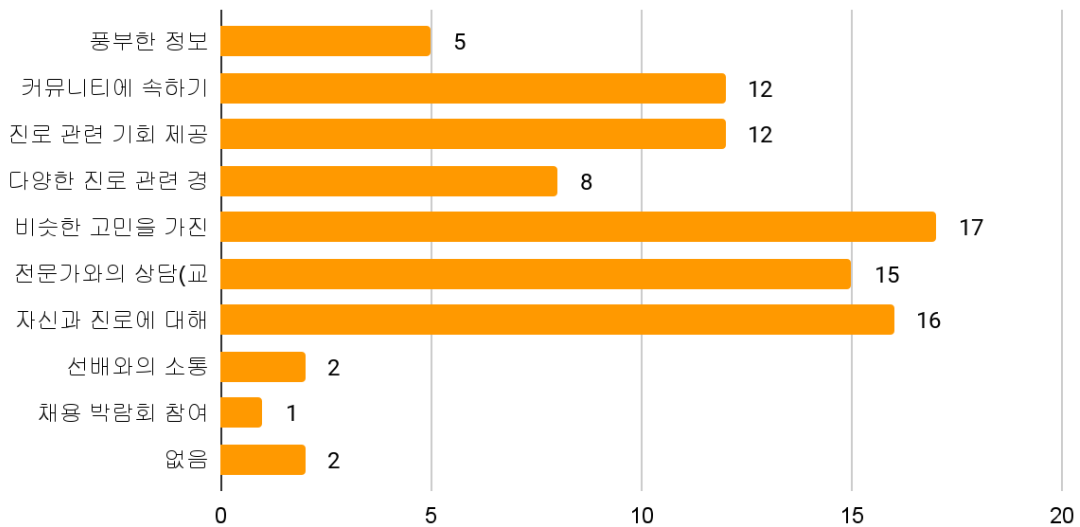
1. 표정완 🍅

a. “저랑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랑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2)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실제로 받은 도움 중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아래 항목들 중 복수 선택)

(항목 : 풍부한 정보 / 커뮤니티에 속하기 / 진로 관련 기회 제공(전문가 강의, 인턴십, 비교과 프로그램 등) / 다양한 진로 관련 경험 /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 전문가(교수님, 진로 상담가 등)와의 상담 / 자신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 / 없음)

2)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실제로 받은 도움 중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가? (31명)



i. Insight

1.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실제로 받은 도움 중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자신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 (2위)', '전문가와의 상담(교수님, 진로 상담가, 주변 어른 등) (3위)'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에 속하기'와 '진로 관련 기회 제공(전문가의 강의, 인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이 공동으로 4위를 기록하였으며, '풍부한 정보 (5위)', '선배와의 소통 (6위)' 2건, '채용 박람회 참여(7위)' 1건이 뒤를 이었다.
2.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그러나 1위(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2위(자신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 3위(전문가와의 상담) 항목에서의 개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해당 세 항목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특이 사항으로 '없음' 항목에 대한 답변이 2건 존재하였다.

a. 커뮤니티에 속하기

i. Quotation

1. 김윤수 🍊

-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학과라든지 이런 것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b.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i. Quotation

1. 이예운 🍊

- “보통 진로에 관한 거는 어차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기준을 못 세워서 고민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좀 레퍼런스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또래 사람들, 특히 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 찾아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정보를 막 모은 다음에 그 사이에서 기준을 세우는 편.”

c. 전문가와의 상담(교수님, 진로 상담가, 주변 어른 등)

i. Quotation

1. 권민경 🍊

- “교수님과의 상담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실제로 저희 선배들이 어떤 곳에 취업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며 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2. 김윤수 🍊

- “저희는 과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저희 과는 설계 교수님이 계시고, 일주일에 두 번씩 5시간씩 보면서 한 12명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돈독해져요.”

- “그러면 저희한테 애정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은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같은 거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들어주시고, 또 피드백이나 어떤 조언도 해주시고, 그 이후로도 애가 이런 방향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 프로젝트도 그런 방향으로 막 밀어주시고 하시거든요.”

- “그리고 4학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현장에 데려가 주세요. 설계사무소, 대형 사무소 아니면 현장 이런 식으로 많이 데려다 주시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얻는 것 같아요.”

3. 표정완

- “저는 요즘에 진로 강연, 멘토링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특히 서울 안에 있으면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많은데, 작년부터 올해 연초까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나한테 참견은 하지 않지만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기회를 좀 찾아다녔던 것 같고.”

d. 자신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

i. Quotation

1. 이예운

- “전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냥 집 책상 앞 다이어리랑 해결하는 편이에요.”

e. 선배와의 소통

i. Quotation

1. 권민경

-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미리 경험한 분들의 조언들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구요. 의류인의 밤에 참여했을 때 그때 저희 학과 대선배부터 18학번 선배분들까지 다 만날 수 있었어요. 제 옆자리가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의류 벤더 회사를 다니고 있으신 선배여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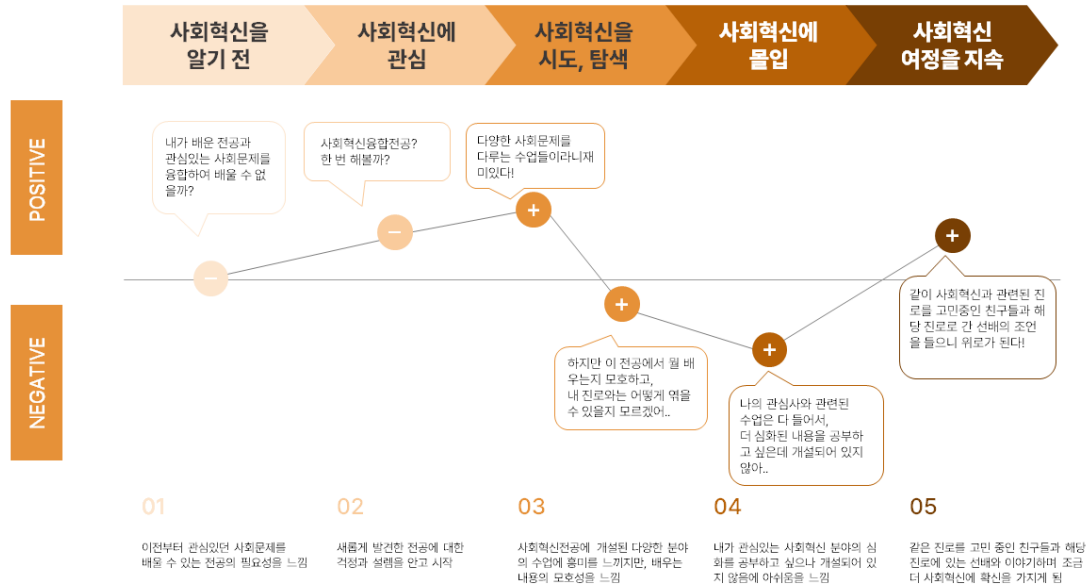
2. 표정완

-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저랑 비슷한 길을 걸어왔던 선배라든지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또래들, 약간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Chapter 4. Journey Map

3개의 학생 사회혁신가 그룹(연시, 홍시, 곳감)의 **Persona**를 바탕으로 한양대 생태계 속 학생 사회혁신가의 **Journey Map**을 설정해보았다. 해당 **Journey Map**은 다음과 같다.

Journey Map



Chapter 5. 마무리하며

1)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생태계의 학생 사회혁신가들의 [Chapter 1. 사회혁신에 대한 생각], [Chapter 2. 사회혁신 융합전공], [Chapter 3. 진로 결정], [Chapter 4. Journey Map]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각 챕터별 요약 및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Chapter 1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의 정의에 대해 다루었다. 학생들은 사회혁신이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진정한 사회혁신가가 되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과 ‘용기’, ‘선한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은 건축, 의류 산업,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등 대부분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불균등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혁신 관련 활동 경험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연시, 홍시, 굿감 모두 교과 활동(수업)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생 사회혁신가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교내 활동 외의 대외 활동, 인턴 및 직무 경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apter 2에서는 사회혁신 융합전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하였다. 조사 및 분석 결과, 많은 학생들이 친구의 추천 또는 수업 선수강을 계기로 사회혁신 융합전공에 입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들이 선정한 인상 깊은 과목으로는 [사회혁신공감실습], [임팩트측정및커뮤니케이션], [인구변화와미래복지] 등이 있었으며, 앞으로 ESG 분야의 과목 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혁신 융합전공 전반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8.1점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업 진행 방식(수업 측면), 사회혁신 행사(비교과 측면), 교수님 및 친구와의 만남(네트워크 측면)을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학생 사회혁신가의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본인이 성장했음을 느끼며(수업 측면), 선배 및 후배와의 만남(네트워크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수업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폐강의 불안함과 얕은 지식의 습득이 있었으며, 비교과 측면에서는 인턴, 동아리 및 학회의 부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실무자와의 만남 부족과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음(네트워크 측면), 정보의 부족과 불투명한 진로(전공 자체 측면) 또한 아쉬운 점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전공을 하며 변화된 점으로 학생들은 사람, 네트워크, 관계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공통된 답변을 제시하였다.

Chapter 3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대해 다루었다. 이들은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턴과 같은 실무적 활동을 포함한 다방면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받은 도움 중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자신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 전문가와의 상담을 선택하였다.

Chapter 4에서는 Chapter 1에서 3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양대 생태계 속 학생 사회혁신가의 Journey Map을 제시해 보았다. 학생들은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회 문제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전공을 필요로 함에 따라 사회혁신 융합전공이라는 새로운 전공을 찾게 되고, 걱정과 설렘을 안고 시작하게 된다. 이후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전공 수업들에 흥미를 느끼나, 배우는 내용에 대한 모호함과 관심 분야의 심화 과목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느끼게 된다. 그러나 비슷한 진로를 고민 중인 친구들, 해당 분야에 진출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2) 제언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들은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융합전공 담당 부서에 더 나은 전공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수업 측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얕은 지식의 습득, 즉 기초 과목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각 분야별 심화 과목을 개설하고, 해당 새로 개설된 과목들의 폐강을 막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 희망 과목에 관한 설문 조사 및 공모전 등을 실시한다면 이들의 니즈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비교과 측면에서 동아리 및 학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아리, 학회, 학생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엠버서더,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다소 일시적인 경향이 있기에 동아리, 학회, 학생회를 새로 만든다면 학생들 간의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해짐으로써 네트워킹 부족 문제 또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전공 자체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경영학부의 경우에는 여러 과목들에 대한 코드 세어가 가능한 반면,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단 한 과목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사회혁신 융합전공을 다중전공하는 만큼, 여러 학과의 수업들 중 사회혁신과 관련된 과목들에 대한 더 폭넓은 코드 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융합전공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